

23.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24.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오늘말씀은 또 하나의 ‘신(神)나는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 맺으시는 사역(使役)입니다. 이 사역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內住)하셔서 우리를 인도(引導), 죽이심-정화(淨化), 증언(證言)해주시는 성령님의 목적(目的)과 방향(方向)을 규정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3-25절의 단 세절 안에 <성령이 어떻게 열매를 맺으시는 가 하는 것>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몇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I.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이다>는 말씀이 보입니다.

오늘말씀 23절은 그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규정(規定)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참고로 두 개의 한글번역을 읽어보면 좀 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 1) 공동번역 / “성령을 하느님의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
- 2) 현대인의 성경 / “성령을 첫 열매로 받은 우리”

‘공동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의 첫 선물’ ‘첫 열매’로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라는 선물 또는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38절에서 베드로의 설교와도 일치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贈物)로 받으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만 하다면, 바울사도는, 왜 ‘우리’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는 어려운 말을 사용했을까요? 그냥 <성령을 받은 우리>라고 하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말입니다. 왜 말을 어렵게 빙빙 돌렸을까요?

제 생각하기로는 여기에 더 깊은 뭔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바울이 로마교회 교인들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시는 대로, 로마교회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강림사건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로 추정(推定)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의하면, 성령님이 예루살렘에 임하셨습니다.

행전2:1-13절을 각색(各色)해보자면,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에,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였고, 소리뿐 아니라 불도 나타나는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날름거리는 것들이 보였고, 놀라운 것은 그 불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각(聽覺)과 시각(視覺)을 동반한 초자연적(超自然的)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놀라운 것은, 그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외국어방언(外國語方言)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혀를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고 이상한 말을 했는데, 알고보

니, 그 말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각 나라의 사람들의 언어(言語)였던 것입니다. 적어도 15개지역의 사람들과 외국어가 성경에 기록되어있을 만큼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메시지의 내용은 동일했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혁명적인 사건인 성령강림사건입니다. 그런데 2:10절에 보면 그때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2:10)

어쩌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이들(로마교회성도들)을 지목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익은 열매는, 그것보다 더 과거인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약(舊約)에서 '첫 열매'는 여러 의미와 상징이 포함되어있습니다.

1) '이스라엘 자체'를 '첫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2:3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와 소산 중 첫 열매’라고 합니다.

2)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구약에 첫 열매(비쿠르, כּוּרִי)는, 농산물(農產物)의 처음 난 소산, 가축(家畜)의 첫 새끼, 인생(人生)의 첫 아들을 포함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입니다. 왜 드려야 하나면, 첫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 34:26, 레 23:17, 민 18:12).

3)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첫 열매를 주셨을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이 계속 축복(祝福)과 보호(保護)를, 풍성한 추수(秋收)를 보증(保證)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열매)로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오게 될, 더 큰 구원과 영광(몸의 구속을 포함한 완전한 구원)을 미리 보증해주는 “보증금(保證金)”과 같은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령+첫열매의 의미는,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진 것 자체가, 완전한 구원을 보장하는 하나님 쪽의 첫 수확, '보증'이라고 풀이합니다. ("the presence of the Spirit in the believer is God's guarantee of the fullness of the harvest of redemption",

성령과 보증의 연결점이 고린도서에도 등장합니다.

고린도후서 1:21-22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1-5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歎息)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잠진 것 같이 탄식(歎息)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니라.” * 증언만이 아니라 보증까지 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사실들은, 우리에게 성령님의 내주(內住)가 보통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령의 내주는 우리의 미래를 포함하는 열매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랍고 깊은 성령의 내주(內住)와 첫열매되심과, 계속 열매를 맺으실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 되는지요...

정리하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은 이중성(二重性)이 있습니다.

1. 성령은 양자된 우리들에 주시는 하나님의 첫 선물이자 열매입니다.

2. 우리가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는 말속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개인으로가 아닌 공동체로 이해하면 이것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성령은 열매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로 열매를 맺게하고, 그 열매가 성장하고 익어가게 하도록 우리 공동체(共同體) 안에 수여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하면, 한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는 데, 그것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열매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일에 간여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안에 오신 성령님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의 메이저 관심중의 하나는 내안에 그 성령님의 열매가 계속 맺혀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체적사랑과 배려에 감사하지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마냥 손쉬운 것이 아님이 곧 드러나게 됩니다. 탄식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지요.

II.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의 탄식(歎息)

지금까지는 좋은 이야기만 했습니다. 성령님을 받는 이야기,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성령, 우리 안에서 보증으로서의 성령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상황 끝일까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요?

놀랍게도 본문 안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23-25절을 다시 볼까요?** 여기에 사용된 단어(單語)들과 감정(感情)들을 주목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이게 감정선으로 읽는 로마서입니다)

23.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歎息)하여 양자(養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贖良)을 기다리느니라.** 24.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리리요** 25.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리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탄식(歎息), 기다림, 참음 등의 단어들을 보셨습니까? 무엇을 느끼시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과정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두려우십니까? 염려되십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歎息)하여” * 탄식=한숨을 쉬며 한탄함

* 로마서 8장에는, **탄식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탄식은 로마서 7장에서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8장에서도 그것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1)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스러운 나타남>을 기다리며 탄식한다 (롬 8:19-22)
복수형에 유의해야 합니다.(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재림(再臨)시에 나타날 우리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의 무리, 부활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무덤에서 일어나는 무리를 상상하게 합니다.

2) 성령받은 신자들의 탄식, ‘속으로 탄식’, ‘속으로 신음’한다고 합니다 (롬 8:24-25)

3)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 (롬 8:26-27)

로마서 8장에서 '탄식(歎息.groaning)'은 희망과 기다림, 괴로움의 감정을 동시에 담고 있는

핵심적(核心的)이고 상징적(象徵的)인 단어입니다.

그러나 혼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함께'라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성령님까지 함께 탄식합니다. 이 탄식은 단순한 슬픔이나 고통의 표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점이 주목해보아야 할 점입니다. 이 탄식에는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탄식으로부터의 탈출을 꿈꿉니다. 미래의 영광과 구원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승화(昇化)됩니다.

성령을 선물(열매)로 가진 사람들의 탄식극복법(歎息克服法)은 무엇일까요?

성령받은 사람도 탄식합니다. 아직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탄식은 대안(代案) 없는 탄식은 아닙니다. 대안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23의 "**양자(養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贖良)을 기다리느니라**"는 신자들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신자들이 이미 명분상 양자됨을 얻었으나, 그 실질적 완성(몸의 구속과 영광스러운 변화)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이미 얻은 것과 아직 기다리는 것>의 간극(間隙)입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명분상 채택(양자됨)을 받았고, 성령의 '첫 열매(firstfruits)'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과 창조세계는, 여전히 고통과 부패, 죽음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몸의 속량, 즉 몸의 부활과 새롭게 변화되는 물리적(物理的) 구원(救援)은 미래의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Already, But Not Yet" 신학(神學)이라 합니다 : 신학적으로 이것은 "이미(already), 그러나 아직(not yet)"의 긴장 속에 있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신자들은 믿음과 성령으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자격과 권리를 받았지만, 주의 재림과 몸의 영광스러운 부활 때 비로소 완전한 양자 신분(身分)과 영광(靈光)을 실질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현재 신자들이 "기다린다"고 표현하며, 미래에 이루어질 완전한 속량을 소망으로 간직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할 자세입니다.

24.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리리요

25.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요한계시록 14장해보면 **처음 익은 열매들의 신앙생활**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이다 라고 생각하고 함께 읽어 봅시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미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렛소리와의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贖良)함을 받은 십사만 사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贖良)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계시록 14:1-5)

144000명이 누구냐에 대해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

“종말에 인침 받은 실제 유대인의 숫자다”와 “모든 시대의 참 신자이다”는 두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문자적이다 상징적이라는 두 가지 이론(理論)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처음 익은 열매들의 성숙한 모습을 봅니다.

- 1) 새 노래를 배우고 새 노래를 노래하는 자들,
 - 2) 순결한 자들, 3) 어린양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들, 4) 거짓말과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 이것들이 성령이 그들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들이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마무리는 성령의 열매맺으심에 대한 가장 위대한 성경구절인, 갈라디아서 5장 22-26절로 마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情慾)과 탐심(貪心)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라>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榮光)을 구하여 서로 노(怒)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妬忌)하지 말지니라.” (갈 5:22-26)

위의 구절들을 보면 몇 가지 주목할 점들이 있습니다.

- 1) 성령의 열매를 맺음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입니다.

혹시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1) 본문에서 바울은 위와 같은 것들이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강력한 성령의 이끄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

성령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성령이 주도적으로 그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성령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한다는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고 우리에게 예정된 길이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2)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이 있어요! 호레이 !! 야호 !!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안에서(in the H.S) WALK IN(KEEP IN STEP)해야 합니다.

* 그리고 <자신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情慾)과 탐심(貪心)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현재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두 가지 강한 것들이 역사합니다. <성령의 법>과 <자신의 신앙이해, 선택과 결단>이 동시에 작용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열매는 달리고 성장하고 무르익어 향기를 발하며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2) 헬라어 원문에서 '열매'(καρπός, karpos)는 단수형이며 복수로 쓰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는 여러 개의 별개 항목이라기보다 근본적으로 하나의 특성(예: 사랑)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전 13장의 사랑의 정의를 보면 이미 성령의

여러 열매들이 보이는 것을 보면 알수 있지요. 따라서 성령의 열매 9개를 하나하나 목표로 세우고 가는 것보다 하나에 집중하다보면 함께 따라오지 않나 생각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3) 마지막관점은 성령의 열매를 혼자, 개인이 맺는 열매라는 차원을 벗어나 넓게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위의 구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우리>라는 말에 주목합니다.

성령의 9가지를 열매를 나 혼자 맺어낸다는 생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로 넓혀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혼자 수퍼맨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 입니다.

맺음 :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정화하시고 증언하시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지속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성령님의 작품’인 것을 인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도: 우리를 예수민게 하시고 우리안에들어오셔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감사합니다. 우리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광의 완성과 승리를 보증하시고 열매맺게 하심을 보며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께 순종함으로 모든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